

뉴디아이 등 나주산단 개발기업들, 동신대에 61억 건물 기부

나주지역에서 14년 간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던 뉴디아이 주식회사(대표 정진욱) 등이 나주와 동신대학교 발전을 위해 나주시 남평읍 소재 5층 건물을 동신대학교 장학회관에 기부해 화제다.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22일 오전 11시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동신대학교 장학회관 기부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정진욱 뉴디아이 주식회사 대표와 신대호 대표, 염지원 대표 등 기부자들이 참석해 이주희 총장에게 동신대 장학회관 기부 약정서를 전달했다.

기부자들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나주일반산단, 신도일반산단, 33만㎡ 규모의 남평도시개발조성 사업을 직접 추진하며 나주 도시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주역들이다.

기부자들은 이날 "동신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해 나주와 전남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주주 총회 승인과 건물 소유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 나주시 남평읍 소재 투에이치빌딩 토지와 건물, 채권, 유체동산 일체를 동신대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기부받은 동신대학교 장학회관은 대지면적 267평, 건축 연면적 1207평,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며, 채권과 유체동산을 포함한 기부 산정 금액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61억원에 달한다. 동신대는 장학회관 수익금을 장학금과 교육환경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정진욱 대표는 "나주 시민들의 도움으로 나주일반

산단, 신도일반산단, 남평도시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기에 늘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인재 육성에서 시작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 동신대학교의 교육적 성과와 지역 상생 노력을 보면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가족음악회



광주 동구(정장 임백)는 지난 21일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윤경아)가 '가족음악회'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과 부모가 더불어 건

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윤경아 회장은 "가족음악회를 통해 아동과 학부모들이 서로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가족의 추억을 하나 더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광주청춘학교' 개교식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금호평생교육관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광주청춘학교' 개교식을 열었다.

(사진)

이날 개교식은 광주청춘학교 학습자와 강사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직선 4기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 중 하나인 광주청춘학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 교

육, 디지털 생활·문화교육, 문화예술체험학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청춘학교에서는 성인 만학도의 학습 욕구를 충족할 만한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팝페라 테너 임형주 최연소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팝페라 테너 임형주(사진)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다고 소속사 디자인컴이 22일 밝혔다.

임형주는 23일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문화예술관에서 열리는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막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역대 수장자 가운데 최연소로 받는다. 임씨는 25년이 넘는 기간 꾸준히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1998년 삼성영상사업단과 전속계약을 맺으며 받은 계약금 300만원을 전액 기부했고, 같은 해 데뷔음반 '위스퍼스 오브 호프'의 타이틀곡 '난 믿어오'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세계 불우 아동을 위한 캠페인 뮤직비디오로 제작했다. 이후 국제자선기구의 홍보·진선대사로 20여년간 활동했다. 남양주 '드림키즈 오케스트라'의 총예술감독을 무보수로 맡고 있으며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콘서트 티켓을 기부해왔다. /연합뉴스

광주고용노동청, 일자리 수요데이 in 광주 개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광주고용센터에서 광주시, 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수요데이 in 광주' 행사를 열었다.

(사진)

'일자리 수요데이 in 광주'는 고용노동부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상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다. 매월 수요일 11층 상설 채용관에서 기업설명회, 채용면접, 직종별 명장들의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IT 업종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 8곳이 참여해 17명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현장 면접에 앞서 구직자들에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5 사랑의 가족(재)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5 글로벌 건강 비법 최강백세(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스튜디오 K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수사반장 1958(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7인의 부활(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피도 눈물도 없이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00 KBS 뉴스타임 15 영동발달 콩순이와 친구들 8 30 TV 유치원(재)	55 기본 좋은 날	
3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영동발달 콩순이와 친구들 8 30 TV 유치원(재)	55 기본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도그래피 스페셜	00 주디세이 퀴즈쇼 15 다이노 파워즈 3 30 농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한국사 대모험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05 남도 탐구생활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15 도사리 스페셜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덩치 서바이벌-먹피빠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15 스모킹 건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코리아 온 스테이지 -뉴 제너레이션(재)	40 우리, 집 프리미어(재) 55 문화콘서트 난장	50 닥터 365 55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55 닥터 365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레인보우 버블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PD로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캠핑가 타고 남아프리카 대탐험 -와일드 오카방고>
0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내가 그린 꽃밭 4부 나는 나비, 당신은 꽃>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클래스 e	21:55 귀하신 몸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록스	22:45 다큐멘터리K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50 고고다노 해양구조대	16:30 페파 피그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09:05 골짜기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09:20 인간이 되자!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09:40 신계속의 맛따사이를 다이아리(재)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0:30 한국기행(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3일 (음 4월 16일 丁亥)	☎ 010-9790-8237
36년생 실효적이고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라. 48년생 뿌린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이루게 되리라. 60년생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72년생 숙원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84년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할 때이다. 96년생 심리의 저변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포기할 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9, 58	42년생 진행 중인 것에만 신경 쓰며 집중력을 높인다. 54년생 확신이 지나치다면 주변인들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알라. 66년생 얼핏 보아도 표가 나게 되어 있다. 78년생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맞이하게 된다. 90년생 한 시도 설 수 없는 숨찬 하루가 될 것이다. 02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4, 91	
37년생 부분에 한정되므로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49년생 행운을 알리는 흥겨운 풍악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61년생 생 아랑곳 하지 않고 홀로 높은 산을 오르는 이가 보인다. 73년생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이 옳다. 85년생 진행과 정지 간에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97년생 부화뇌동 하다가는 곤란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3, 81	43년생 험들더라도 시종일관하여야 궁극에 이르는 법이다. 55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67년생 한사를 놓을 수 있는 판국으로 가다가 집결하게 된다. 79년생 이면의 심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91년생 끝나는 마당에 탈이 날 수도 있다. 03년생 변화무쌍한 상황이니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9, 93	
38년생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처하였을 때 성사의 가능성을 높게 된다. 50년생 단독으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62년생 시종일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74년생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 질 것이니라. 86년생 능력이 오르고 활력이 넘쳐진다. 98년생 구원으로 인한 업보가 깊으리라. 행운의 숫자 : 30, 96	44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번잡하고 가득한 곳에 임하리라. 56년생 얽힌 데 뉘친 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68년생 조건을 남남이 고려한다면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 80년생 갈등에 사로잡히는 고뇌가 보인다. 94년생 길조가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 04년생 상호간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18, 94	
39년생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51년생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전개될 것이다. 63년생 당장할 수는 있으나 탄력을 받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 75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성사된다. 87년생 전체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상정하는 의미는 크다. 99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행운의 숫자 : 24, 59	45년생 지금 이대로 조호해 나간다면 완벽에 가까운 판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57년생 부질없는 일에 매달린다면 낭비로 다. 69년생 성과물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된다. 81년생 쌓아 온 공로가 자신의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93년생 쓸 곳은 많은데 없어서 곤혹스럽게 그치지않다. 05년생 일회일비가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31, 63	
40년생 부수적인 것에 얽매어서 주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52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64년생 강금적이면 상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낫다. 76년생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88년생 남들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00년생 고목이 붉을 만나서 싹을 트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3, 90	46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밤잠이 쉬어 가는 법이다. 58년생 대단히 부당스러워 해왔을지라도 막상 실행하고 보면 쉬울 것이다. 70년생 기다리던 소식에 없어서 애가 타겠다. 82년생 앞당겨져서 처리 되는 세계이다. 94년생 길조가 나는 듯이 기운차다. 06년생 바람직한 형국으로 펼쳐지고 있으니 당당하게 나서도 되는 때이다. 행운의 숫자 : 42, 98	
41년생 전후 사정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만 가닥을 잡을 수 있느니라. 53년생 방심하다가 휘둘릴 수도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두라. 65년생 편의만을 도모하다 보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77년생 시시각각 변하는 위상이니 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89년생 기대하지 않음이 옳다. 01년생 한 치의 오도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1, 87	47년생 면전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별것이 아니니 결코 놀랄 것까지는 없다. 47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59년생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리라. 71년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요령이 깊이하도다. 83년생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 95년생 직접 접해 봐야만 아는 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2, 99	